

제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불법촬영 문제점 -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윤정 의원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찍히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카메라가 버스와 지하철에서, 공중화장실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우리를 찍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까지 말이죠. 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다 안전이 보장되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몰래카메라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이것은 흔히 말하는 불법촬영을 뜻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카메라 구매에 대한 규정이 없어 누구든지 싼값에 몰카에 사용되는 카메라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몰래카메라는 작아 맨눈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물건들에 내장되어있는 경우도 있어 단속이 어렵습니다. 몰카에 찍힌 영상들은 소라넷, 천사티비, 텀블러와 같은 불법 야동사이트에 업로드 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 그리고 저와같은 여성 청소년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써의 삶이 누군가의 성적욕구를 위한 포르노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법적으로 몰카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그리고 몰카범이 경찰에게 덜미가 잡혀도 피해자 대부분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가해자가 있다면 약 2명이 집행유예로 처분되는 정도입니다. 허술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요.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사례와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시 그리고 당사자 분들께 허락 받아 그 분들의 사례를 적었습니다.지금부터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몰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사례를 하나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16세 이양은 항상 대바늘을 들고 다닙니다. 가끔씩 지하철 화장실 구멍사이로 대바늘을 넣으면 렌즈 카메라가 깨지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20세 박양은 올해 5월즈음 에스컬레이터에서 뒷사람이 자신의 치마속을 찍는것 같아 화를 냈고 그러자 그 가해자가 지우면 될것 아니냐라는 하며 그녀에게 성적인 희롱을 가했다고 합니다. 17세 정양은 공중화장실 사용을 안하려고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는 마스크나 손수건 같은 걸로 얼굴을 가리면서 일을 본다고 합니다.위 사례처럼 피해자는 여러분들의 친구, 가족,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 여러분들이 될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작은 스티커로 몰카로부터 안전해질수 있다는 것ですよ. 현재 "NO,불법촬영(몰카)ZONE"과 같은 청소년 동아리들은 청소년들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직접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지하철 역 등 다양한 공간에서 몰카를 수색하는 활동을 하고있습니다.장소를 탐색하고 몰카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인 것이 확인되면 그 기관에 안전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스를 운영하여 불법촬영의 위험성을 설명해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너무 예민한것 아니냐고. 그저 나의 취미일 뿐이라고.나의 즐거움을 앗아가지 말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민해져도 됩니다,아니 예민해져야 합니다.이 예민함은 우리가 살기좋은 고양시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 입니다.고양시는 고양시내에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나는 소중한니까요.나의 몸은 누군가의 단순한 성적소유물이 되면 안될 정도로 소중한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예민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민해도 괜찮습니다.